

# 노인 5명 중 1명 80세 이상...30%는 아직도 일해

## [노인실태조사]

65세 이상 노인중 80세이상 노인 비중이 21%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노인 평균연령이 74세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 혼자사는 노인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.

10년 사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1개 가까이 늘었으며 같은기간 전체 소득에서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.

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~11월 8개월간 전국 1만299명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, 소득·건강·기능상태,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(한국보건사회연구원)를 24일 발표했다.

노인 평균나이 74세 돌파... 만성질환수 늘어

연령구성을 보면 65세이상 노인중 80세 이상 노인 비중이 지난해 21.7%를 차지했다. 2008년 16.0%에서 2011년 17.3%, 2014년 20.8%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. 전체 노인 평균연령도 지난해 74.1세로 10년 전인 2008년(72.9세)보다 1.2세 높아졌다.

학력수준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율은 2008년 15.3%에서 지난해 6.0%로 급감했으며 중학교 이상자 비율은 29.0%에서 절반에 가까운 41.7%로 증가했다.

혼자사는 비율도 2008년 19.7%에서 2014년 23.0%, 지난해 23.6%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.

이런 가운데 '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'는 응답은 같은 기간 32.5%에서 지난해 15.2%로 반토막이 났다. 자녀와 함께 사는 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

만성질환 51% 3개 이상 질환 보유...13.2% '자살시도 경험'

자녀와 동거 15.2%만이 '긍정적'...치매수진을 절반도 안돼

일하는노인 10명 중 4명 단순노무직...73% 생계비 마련이유

혼자 사는 노인 가구중 '생활상 어려움이 없다'는 응답자가 2008년 12.7%보에서 지난해 44.5%로 크게 늘었는데, 8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경우 10명중 8명 정도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.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'아플 때 간호'(19.0%), '경제적 불안감'(17.3%), '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'(10.3%) 순이었다.

2008년부터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졌다. 가까운 친인척이 있다는 비율은 56.2%에서 46.2%, 친한 친구·이웃이 있다는 비율은 72.6%에서 57.1%, 주 1회 이상 자녀와 왕래 비율은 44.0%에서 38.0%로 모두 하락했다.

복지부 관계자는 "단독가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·고령노인에 대해 돌봄을 단독생활을 선호하는 고소득·초기노인은 일자리 등 돌봄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"며 "약화된 사회적 관계망 보안을 위해 노인복지 인프라 재평가를 통한 돌봄 확대,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만성질환은 노인의 89.5%가 앓고 있었다.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자 비율이 30.7%에서 절반이 넘는 51.0%로 급증하면서 평균 만성질환수도 2008년 1.9개에서 지난해 2.7개로 증가했다.

건강검진 수진율이 82.9%인데 비해 치매검진 수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.6%였다.

21.1%는 우울증상이 있었으며 6.7%가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

고 답했다. 실제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0명 중 1명 이상인 13.2%였다. 응답자의 14.5%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, 무배우자,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.

복지부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 관리 강화와 고연령자·저소득자 대상 우울·치매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치매국가책임제 실시,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(지난해 58만명→2022년 86만명) 및 보장성 강화,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발표,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.

노인의 79%는 현재 주거지에 불만을 나타냈다. 불편 사유는 주방, 화장실, 욕실 사용 순이었다.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를 갖춘 경우 6.1%에 불과하고 노인복지관과 거리도 30분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응답률도 55.9%나 됐다.

그럼에도 88.6%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살기를 원했고 57.6%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집에서 머물기를 희망했다. 돌봄, 식사,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거주를 희망한 비율은 31.9%였다.

일하는 노인 10명중 3명...급여 낮은 단순노무직 증가

노인의 개인소득원을 분석해보니 공적연금 기초연금, 기초생활보장급여, 기타 공적급여 등이 성숙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10년간

꾸준히 증가했다. 2008년 28.2%에서 지난해 36.9%까지 늘었다. 대신 같은 기간 사적이전소득은 46.5%에서 22.0%로 줄었다.

노인은 소비 관련 항목 중 주거 관련 비용(30.4%)을 가장 부담스러워했다. 다음으로 보건 의료비(23.1%), 식비(18.7%), 경조사비(4.4%)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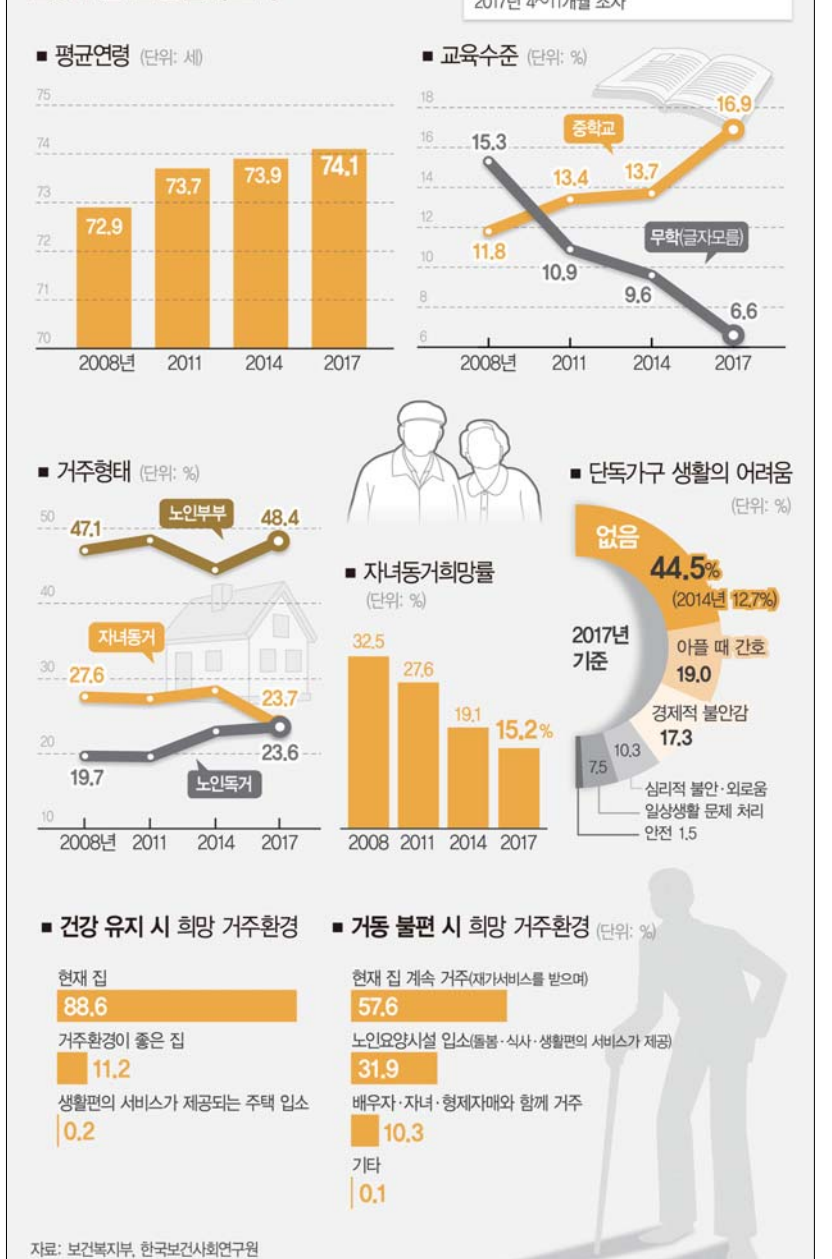
노인 10명 중 3명(30.9%)가 경제활동에 참여했다. 산업구조 변화로 농업어업 종사자 비중은 2008년 60.5%에서 지난해 32.9%까지 감소했으나 급여 등이 높지 않은 단순노무직이 24.4%에서 40.1%로 급증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노인의 9.4%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았다. 다만 초기 노인일수록(65~74세 12.4%, 75세 이상 5.2%), 고학력일수록(무학 6.0%, 초졸 8.4%, 전문대 이상 11.5%) 향후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.

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73.0%가 생계비 마련을 꼽았으나 그 비율은 2008년 85.9%에서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. 대신 용돈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가 3.7%에서 11.5%로 늘었다. 비경제적 사유로 일하는 비율은 고졸 이상(6.0%)이 무학(2.1%)보다,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5분위(4.2%)가 소득1분위(1.9%)보다 높았다.

복지부 관계자는 "노인의 부동산, 자산이 증가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감소했는데, 일부는 공적 소득보충 확대의 효과"라고 해석했다. 다만 "전 노인 계층에서

## 2017년 노인실태조사



근로의 절대적인 사유는 아직까지 생계비 마련인 점 등을 감안해 공적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해야 한다"고 했다.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지난해 20만6000원에서 올해 9월 25만원, 2021년 30만원 등으로 인

상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10월), 노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 적용 완화(지난해 11월부터 단계적 적용),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(지난해 46만7000개→올해 51만개)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

## 노인 68% "지하철 무임승차 유지해야"...연명치료 92% 'NO'



### 화장 선호...여가 99%가 TV시청

65세 이상 노인 10명중 7명 가까이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. 제도를 개편한다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형태를 선호했다.

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~11월 8개월간 전국 1만299명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, 소득·

건강·기능상태,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한 조사결과(한국보건사회연구원)를 24일 발표했다.

이번 조사에서 노인들은 86.2%가 노인 연령기준을 '70세 이상'으로 생각해 10년전인 2008년(68.3%)보다 증가했다. 반대로 69세 이하를 노인이라고 본 비율은 31.7%에서 13.8%로 절반 이상 줄었다. 이런 가운데 지하철 무임승차와

관련해선 찬성 의견(67.6%)이 많았다. 현재 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인천·대전 등 6개 광역단체에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
다만 매우 동의(11.7%)보다 동의(55.9%)가 많아 소극적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.

무임승차에 중립이나 부정적인 노인은 제도 개편 방향으로 '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(86.6%)을 선호한 비율이 '운임 일부 본인부담'(67.1%)보다 많았다.

노인의 91.8%는 연명치료를 반대하고 있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. 희망하는 장례 방법도 화장 선호 비율이 2008년 45.0%에서 지난해 71.5%로 크게 증가해 장례문화 변화가 감지됐다.

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'본인 스스로'(34.0%), '본인과 국가가 준비'(33.7%), '국가차원'(14.1%) 순으로 나타났다.

노인의 99.3%는 여가활동(복수응답)으로 TV시청을 꼽았다. 이외에 산책(27.5%), 스포츠 참여(16.8%),

화초 텃밭 가꾸기(12.0%) 등이 뒤따랐다.

노인의 23.0%가 경로당(6만 5000개)을, 9.3%가 노인복지관(362개소)을 이용하고 있었다. 경로당 이용 사유는 친목도모(91.4%), 식사서비스(57.2%)가 많으며, 노인복지관은 취미여가(49.6%), 친목도모(42.3%), 식사서비스(27.5%) 순이었다.

경로당 이용률은 2008년 46.9%에서 지난해 23.0%로 낮아졌으나 읍면부에선 48.5%로 이용률이 높았다. 뉴스

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



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

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.